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북 아·태 마스터스 폐막... '우정은 영원하리'

71개국 1만4177명 참가
국내 최초 관광·스포츠
친목·화합의 장 조성
아부다비, 차기 개최지로



지난 20일 전라강영에서 열린 전세계 생활체육인들의 대축제 2023 전북 아·태 마스터스 대회 폐회식에서 김관영 대회 조직위원장(사민)이 세르게이 부브카 IMGA 회장(좌)과 함께 차기 개최지인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대회 조직위원회에게 대회기 이양 및 전달하고 박수를 치고 있다.

“하얀 스포츠! 즐거운 어울림!”을 대회 슬로건으로 내걸고 시작된 전 세계 생활체육인들의 대축제 2023 전북 아태마스터스대회*가 지난 20일 폐회식을 끝으로 9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관련기사 16면)

아날 전라강영에서 열린 폐회식에는 ‘특별한 희망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전북도립국악원의 시진공연과 9일간 전 세계인들이 한 데 어울려 뜨거운 경쟁과 우정을 나눈 대회 하이라이트 영상이 상영됐다.

이후 세르게이 부브카 IMGA 회장의 환송사와 김관영 대회 조직위원장의 폐회사가 이어졌고, 차기 개최지인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대회 조직위원회에게 대회기 이양 및 전달식과 가수 김의영과 팝페라 사파나무의 다채로운 공연을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환송사를 위해 마이크를 잡은 세르게이 부브카 회장은 “경기를 치른 모든 선수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고, 여러분은 스포츠맨십의 진정한 대사이며, 여러분의 업적은 우리 모두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면서 “서로 다른 배경과 국가에서 온 사람들과 지속적인 인 우정을 쌓고 인생을 즐기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평생 기억에 남을 추억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부브카 회장은 이어 “2023년 전북 아시아 태평양 마스터스 대회를 자부심과 성취감으로 돌아보기를 바란다”라며 “다시 한번 이 놀라운 스포츠 축제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새롭게 도전하는 모든 노력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기원했다.

대회 조직위원장인 김관영 도지사는 폐회사에서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 9일의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전북도도 여러분 덕분에 행복했다”고 인사한 후 “우리가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음을 또 한번 보여주

었고 도민들의 따뜻한 친절이 전북의 품격을 한층 더 높였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이번 아태마스터스 대회 기간에 나눴던 우정과 화합을 동력으로, 우리 도는 8월에 열린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의 잼버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밝히고 “오늘 우리는 헤어지지만, 우리 만남의 의미는 기억되고 이어질 것이며 소통과 화합을 통해서 세계로 나아가고, 미래를 열어가는 전북의 발걸음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린 이번 대회는 축구, 탁구, 배드민턴 등 25개 종목

71개국, 1만4177명의 선수들과 동반자들이 스포츠를 통한 자아실현, 그리고 경쟁이 아닌 친목과 화합의 장을 만들었다. 또한 이들은 전북의 문화관광 체험을 즐겼다.

한편, 2023년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 차기 개최지인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조직위원회에서 아레프 하비드 알 아와니 사무총장, 사이크 함단 빈 술탄 알 나얀 프로젝트 관리자 등 임원진들이 전반적인 대회 준비과정과 대회 진행상황 등 대회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공유하기 위해 전북을 찾았다. /김재훈 기자

동학혁명 '무장포고문' 세계기록유산 등재 확정

유네스코 집행위, 고창군 관련 3건 등재 승인
군, 필사본 복제 후 전지로 시작점 위상 강화

의왕고창의 정신이 담긴 동학농민혁명 '무장포고문'이 마침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무장기포지 국가적 지정에 이은 또 하나의 쾌거로, 동학농민혁명 시작점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데 큰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문화재청과 고창군 등에 따르면 최근 유네스코 집행위에서는 파리에서 총회를 열고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승인했다.

기록유산에 오른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은 모두 185건이다. 이 중 고창군과 관련된 자료는 무장포고문과 취의록(홍덕현·고창현의 농민군 토벌을 벌인 수성군 명단), 거의록(홍덕현, 고창현의 유생들의 수성군 조직 활동기록) 등 3건이다.

'무장포고문(천도교 중앙총부 소장)'은 1894년 무장기포 당시 봉기의 이유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포고문은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귀하다는 것은 인륜이 있기 때문이다”로 시작해 “의로운 것발을 들어 보국인민으로써 죽고 살기를 맹세한다”로 이어진다. 당시 포고문은 고부 농민봉기 이후 전봉준을 비롯한 동학농민혁명 지도부가 무장현(현재 고창군 공음면)에서 전국적인 농민봉기를 선언 하면서 발표했다.

동학농민혁명의 대의명분을 함축해 전라도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 격문을 보내 농민군들의 합류를 촉발했다. 여기에 동학농민혁로서 증중 응급환자의 진료 및 처치 등을 지원하고, 재난의료지원팀(DMAT) 및 재난의료지원차량 등을 동원하여 대규모 집회 등 비상상황에 대응하기로 했다.

전주병원은 잼버리 환자에 대한 응급환자 진료 및 비급여 항목 진료비 일부 감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재훈 기자



동학농민혁명 '무장포고문'

기포지에 기념관을 짓고 포고문 필사본 등을 전시해 동학농민혁명 시작점의 위상을 높여갈 예정이다.

또한 연말에는 도시 한 중심지인 군청광장 맞은편에 전봉준 장군 동상(군민 성금 등)을 세우고, 군민 자긍심 높이기 위해 나설 방침이다.

고창군은 이번 세계기록유산 등재로,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의 보물 7개(세계문화유산 고인돌, 자연유산 고창갯벌, 인류무형유산 판소리, 인류무형유산 농악, 행정구역 전체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세계기록유산 동학농민혁명기록물)를 보유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의 힘으로 커진 동학농민혁명은 자주와 평등 그리고 민주적 절차를 확립하고자 했던 근대 민중운동의 효시다”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계기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선열들의 숭고한 애국애족정신을 기리며 소중한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당당하게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세계지질공원 인증과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동시에 이뤄내며, 고창군은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의 보물 7개를 보유한 ‘국내최초’의 도시가 됐다”며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혜를 통해 우리 고창의 모든 것을 자신있게 온 세계에 널리 자랑하면서 지역에 활력을 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고창=김영식 기자

새만금 잼버리 협력병원 추가 지정

전북 군산의료원·전북대병원·전주병원 등 3곳
환자 우선 진료 체계·편의 지원 등 협력키로

신건강 상담 및 심리자원을 위한 리스닝이어(Listening Ear) 센터(6개소)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에 추가 지정한 협력병원 3곳은 잼버리 의료체계 운영을 위한 포괄적 협력을 약속했으며, 잼버리 환자 우선

진료 체계(fast track) 및 편의 지원, 진료비 사후 정산 및 통역 지원 등을 공통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전북도 군산의료원은 잼버리 환자 진료비 감면, 응급환자 1차 수용병원의 역할 및 의사 간호사 약

사 등 연인원 13명을 파견해 잼버리 의료체계 운영을 지원한다.

전북대학교병원에는 해바라기 센터 협업, 병원 물자 임대, 권역응급의료센터로서 증중 응급환자의 진료 및 처치 등을 지원하고, 재난의료지원팀(DMAT) 및 재난의료지원차량 등을 동원하여 대규모 집회 등 비상상황에 대응하기로 했다.

전주병원은 잼버리 환자에 대한 응급환자 진료 및 비급여 항목 진료비 일부 감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재훈 기자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오는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협력병원으로 전북도 군산의료원, 전북대학교병원, 전주병원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지난 4월, 원광대학교와 협약식을 갖고 원광대학교병원을 잼버리 협력병원으로 지정할 바 있다.

조직위는 참가자들의 진료 및 건강관리를 위해 잼버리 야영장 내에 잼버리 병원(1개소), 허브 클리닉(5개소), 응급의료소(5개소) 등을 설치하고, 정

